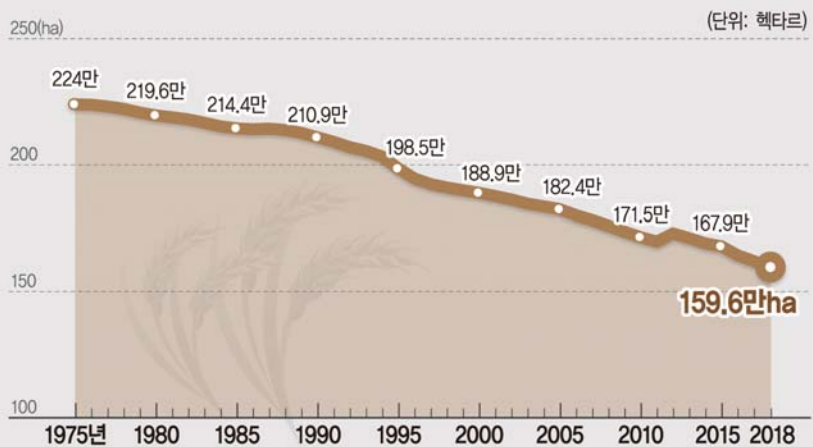


“고령화에 농사 접는 농가 ↑” 작년 논·밭 면적 역대 최저

통계청,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발표...1975년비 약30% 사라져

전국 논밭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지난해 우리나라 논과 밭을 포함한 경지 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짐과 동시에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들의 용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159만6000ha로 1년 전(162만1000ha)보다 2만5000ha(1.6%) 감소했다.

경지 면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1987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87년엔 0.1% 절감 늘어났고, 2012년엔 위성 영상을 활용한 원격 탐사 방법이

도입되면서 시계열이 변경된 영향이었다.

1975년(223만3692ha)과 비교하면 지난해 경지 면적은 약 71.3% 수준에 그친다. 감소 폭은 1995년(-2.3%), 2016년(-2.1%), 1996년(-2.0%) 다음으로 가장 크다.

고령화와 농지 전용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통계 당국은 판단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매년 택지나 공장 용지, 도로·철도 등으로 전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 정책은 면적 감소에 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쌀 생산조정제란 쌀 소비량이 지

속해서 감소해 쌀의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 경영이 타격을 받아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온 정책이다. 정부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 조절을 시도했다. 정책 시행 이후는 면적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밭 면적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경지 중 논 면적이 84만4000ha로 1년 전(86만5000ha)보다 2만1000ha(2.4%) 줄었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에선 52.9%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75만1000ha(47.1%)는 밭으로 전년 대비 5000ha(0.6%) 감소했다. 다만 밭의 비율은 1년 전(46.6%)보다 0.5%p 증가했다. 지난해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면적이 1만8900ha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의 경지면적이 29만1000ha(18.2%)로 가장 넓었다. 경상북도(26만2000ha·16.4%), 충청남도(21만2000ha·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만2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만5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한 원격 탐사가 지난해 5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행됐다. 2만2000개 표본 대상 현장 조사는 11월11일부터 11월30일에 실시됐다.

뉴스시

주52시간제 도입 “가성비 소비 뜬다...집·온라인 키워드”

대도시 에코세대 집에서 온라인 소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는 직장인 여가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바꿀까.

대도시에 거주하는 에코세대들이 '홈(home)'과 '온라인(on-line)'을 중심으로 '가성비' 소비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서비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중견기업에 이대 이상 규모 기업이 종사하는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에코세대가 여가생활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에서 42세에 해당하는 이들 세대가 제일 먼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는데 반해

초과급여는 감소하기 때문에 집에서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뜰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망업종으로는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 등 4개 분야의 22개 여가활동이 꼽혔다.

특히 홈트레이닝과 웹툰/웹소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등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신종 여가활동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동식물이나 캠핑, 호캉스는 비교적 비싸지만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과 홈퍼니싱, 홈뷰티케어 관련 제품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성별 별로는 남성은 블루투스 관련 제품을 여성은 가전제품 에어프라이어 소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인기가 높았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

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회식과 야근이 감소한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퇴근 후 근처 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 수요 확대는 올해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주52시간제 시행 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올해 14% 내년 35% 2021년 73% 등으로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소득이 줄어 지출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주52시간제 여가 확대에 따른 효과는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오유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 소득둔화 영향이 크지 않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이나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전략으로 소비자 경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시



이용실 광주시장(왼쪽)과 송중우 광주은행장이 25일 오전 시청 3층 집결실에서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 사전예약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적극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혁신 업무를 전담하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는 2월 27일, 제주테크노파크는 2월 28일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제조업의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설치 보급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컨설팅, 교육, 시후관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 스마트 제조혁신 전담부서 설치 운영은 제조업 전반의 기술 및 경영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재홍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세계수영선수권 1억 상당 입장권 구매

광주은행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1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광주은행 본점에 대형 마스크트와 포드존을 설치하는 등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실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송중우 광주은행장 등을 광주시청 집결실로 초청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광주에서 개최되는 수영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은행장은 "광주은행의 입장권 구매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광주은행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후원은행으로 대회기간 국외 관람객을 위한 외화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서은홍 기자

작년 보험사 순익 7.4% 감소...생보사 웃고, 손보사 울고

지난해 보험사 경영실적이 전년 대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회사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7조2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00억원(7.4%) 감소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가릴 것 없이 보험영업 손실이 확대되면서 영업의 경영실적이 나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생보사의 보험영업이익은 23조5767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손실폭이 2조8822억원 늘었다. 손보사는 3조1090억원 적자로, 손실폭이 1조3867억원 확대됐다.

다만 순이익보다는 생보사와 손보사간 회비가 같았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4조3369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219억원(3.1%) 증가했다. 영업손실이 확대됐으나, 투자이익이 그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다만 투자이익 증가는 일회성 요인인 삼성전자 주식처분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23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19억원

(17.8%) 감소했다. 투자이익이 늘어나긴 했지만, 자동차보험 손해를 상승 등으로 보험영업 손실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험회사 총자산이익률(ROA)은 0.64%로 1년 전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0.4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손보사 ROA는 1.49%에서 1.12%로 떨어졌다.

한편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155조6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5조585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